

창의성과 철학

“문학을 좋아했지만 창작은 일찌감치 그만두었죠. 제가 그렇게 창의성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임은 물론, 현대인치고 이 진술에 동의 못 할 사람은 드물다. “그렇지. 창의성이 없으면 창작은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이럴 때 창작을 위해 필요한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풍부한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란 대체 무엇을 가진 사람인가? 상상력인가 아니면 더 종합적인 인간적 능력이나 태도인가? 아니면 혹은 어떤 기교나 기술인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타고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천부적인 것인가?

사실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이 ‘상상력을 동원한 창조(create) 활동’이라는 인식은 지금에서라면 보편적인 예술관이지만, 규칙에 따른 제작이나 모방과 같이 창조와는 대척점에 놓인 듯 보이는 개념들로 예술이 이해되던 시대도 있었기에, 이는 분명 역사적으로 형성된 현대적 예술관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적 예술 개념의 형성 과정에서 이론적으로건 상식적으로건 ‘creativity’(창조성, 창의성) 개념은 핵심을 이룬다. 미학의 역사 초기부터도 플라톤은, 비록 자신의 철학에 비추어 부정적인 최종판결을 내리긴 하였지만, 어찌 되었건 시를 뮤즈의 영감에 의존하는 비합리적 창조로 보았다. 후대에 낭만주의는 이를 인간화하여 뮤즈 대신 천재의 능력으로 창조성을 찬양하였고 컬링우드 같은 20세기의 미학자에

이르러서는 예술은 미리 계산되지 않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상상의 산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새로움, 독창성, 창의성 등으로 불리는 요소는 현대 예술의 중요한 예술적 가치 중 하나이자 예술이 인간의 감성과 자유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발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생각의 전제가 되는 예술적 창의성 개념 자체에 관한 연구는, 비록 미학의 주요 개념들의 역사를 다룬 1980년대 타타르키비츠의 책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한 장이 할애된 적이 있었더라도, 본격적으로 자주 시도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인 것으로 신비화시키는 전통이 건재했고 개념적 연구 역시 이 개념이 이러한 비합리성이나 신적인 초합리성으로 간주되어 온 역사를 기술하는 데 그쳤다.

현대에 와서 창의성은 더는 예술 창작과 미학 이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발명, 산업과 제품 생산을 포함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는 신기술, 특허 출원, 미래 먹거리 같은 실용적 가치와 직결되며, 따라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창의성은 어쩌면 또 다른 의미에서 찬양받는 현대인의 덕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 1950년대부터 심리학은 이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당위를 천명하고 다양한 관련 영역에서 실험을 통한 연구 성과들을 내고 있다. 창의성은 교육에서도 현대적 강령이 되었으며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함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이들 중 일부는 창의성을 곧 문제해결에 동원되는 인간 능력과 동일시함으로써 실용적 함의가 큰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창의성을 기본으로 삼고, 창의성을 합리성의 바깥으로 몰아내어 신비화시킨 주범인 ‘예술적 창의성’을 오히려 파생적인 것으로 보려는 시도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험적 관심과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은 창의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메타적이고 반성적인 연구이다. 이 일은 결국 철학, 특히 개념의 분석을 주업으로 하는 영미권의 분석철학에 적

절한 일로 보이나, 어찌 된 일인지 이에 관한 본격적인 탐구의 결과물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거트와 리빙스톤이 편집한 2003년의 논문집 (*The Creation of Art: New Essays in Philosophical Aesthetics*)을 시작으로, 더튼과 크라우스 등이 과거(1981년) 자신들이 편집했던 논문집을 거의 두 배의 분량이 되도록 새로운 논문들로 보강하여 2009년에 다시 출간했고(*The Idea of Creativity*) 2014년 폴과 카우프만(*The Philosophy of Creativity*), 2018년 거트와 키이런(*Creativity and Philosophy*)이 최근의 연구 성과들이 반영되고 새로운 관련 영역으로 확장된 주제들을 다루는 길잡이 격의 논문집들을 속속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철학적 주제로서 창의성에 대한 달라진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존의 예술철학이나 미학뿐만 아니라 인식론, 심리철학, 과학철학, 윤리학 등 철학의 다양한 분과들이 관여하여 창의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려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종합적 이해가 하나의 체계적 이론을 구성해서 한 연구자의 창의성에 대한 이론으로 발전된 경우는 아직 보기 어려운데, 이는 이 논의가 가진 논의 지형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관련 논의들은 창의성이라는 표제어만 공유할 뿐 사방으로 방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만큼의 다양성을 보인다. 여타 현대 분석 미학의 논의들은, 주요한 쟁점은 한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고 이에 관한 입장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데 비해 창의성은 이미 발굴된 쟁점들이 상당히 다양한 것은 물론, 수면 아래에서 논의가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잠재적인 쟁점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거트는 창의성에 대한 현대 철학의 관심을 열 가지 세목으로 정리할 정도이다. 그중에는 창의성의 개념 정의 같은 전형적인 철학적 주제와 함께, 창의성의 가치, 창의성과 합리성, 창의성과 상상력, 성품적 덕목으로서의 창의성 등 철학의 다른 영역들로 확장될 여지가 큰 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논제의 다양성은, 전통적인 수용자 중심의 미학에서 창작자 중심의 미학을 구축하기 위한 차

원의 풍부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작자 중심의 미학을 위한, 창의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과제로 보이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이 과제가 철학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반성 없이 물려받은 ‘상식’을 바로 잡아주고 철학자의 관념적 이해를 보완해 줄 경험적 연구와의 상호 협업이 그 무엇보다 더 필요한 영역이 창의성이다. 현재의 연구자들 역시 철학적 주제와 영향을 주고받을 심리학적 연구 성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양자를 능란하게 결합한 이론의 등장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창의성에 관한 철학적 연구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진단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필자들이 기획한 것도 역시 동시대 연구자들의 창의성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바를 더하는 것이다. 임수영이 다루는 주제는 창의성의 정의, 창의성의 가치, 그리고 합리성 문제이다. 기존 논의들에서 제안된 ‘새로움’과 ‘가치 있음’을 이용한 창의성의 정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행위자에 대한 고려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입장에 동의하면서, 이를 예술적 창의성에 국한하여 볼 때 어떤 조건들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살펴보는 글이다. 이해완의 글은 임수영의 비판 및 보완의 기획보다는 조금 더 급진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창의성에서 말하는 가치가 과학기술이나 심리학에서 전제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재고하자는 제안이다. 이 논문은 창의성을 능력보다는 품성으로 보자는 기존 일부 연구자들의 논의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윤주환의 논문도 역시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는 이 질문을 ‘인공지능이 무엇을 하면 문예 작품을 생산하는 창의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로 치환하여 묻는다. 그리고 ‘허구적 상상’을 그 답으로 제시한다. 세 논문 모두 창의성의 본질과 정의를 논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이는 요소들을 지적하며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생각을

버리고 있는데 향후 각각 자신들의 논의를 창의성과 합리성, 창의성과 품성, 창의성과 상상 등으로 확장할 여지를 풍부히 담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아직은 꼬끼리를 더듬어 이해하려는 식의 부분적인 접근으로 보이지만, 창의성과 관련된 논의 주제들을 분리하여 그 안에서의 명료한 이해를 추구하다 보면 모자이크식으로 대상의 전모가 드러날 수도 있고, 최소한 우리가 어디에서 한발 물러나 거시적인 안목을 취해야 하고 어디가 경험적 연구결과의 증거가 필요한 부분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창의성은 예술과 과학, 미학과 철학, 심리학과 교육학이 교차하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 기획은 그동안 분석미학이 여러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잘 해왔던 일을 이 흥미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시도해 보자는 제안이며 향후 연구를 위한 출발 선언이다.

이해완

